

선교사를 위한 건강 관리

도널드 비 도티, 의학박사,
선교사부 건강 서비스 위원장

전 임 선교사로 나가기 적어도 2년 전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35년간 심혈관 및 흉부 외과의로 일하면서 나는 수천 번의 심장 수술을 했다. 심장 수술 후, 환자들은 다시 수술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종 묻는다. 환자들이 묻지 않아도 나는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체중, 유산소 운동, 적절한 휴식,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주곤 한다. 나의 충고에 따른 사람들은 보통 수년간 큰 탈없이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다. 생활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수술 메스와 만나야만 했다. -보통은 한참 후가 아니라 일찍 그렇게 해야 했다.

지금 시작할

예방은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필수적이다. 오늘날 약 3 퍼센트의 선교사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선교 사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100명 중 3명의 선교사를 잃는 게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에게는 중대한 일이다.

나는 일년 넘게, 선교사들에게 생기는 건강 문제를 관찰하는 부름에서 봉사해 왔다. 내가 부름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이러한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행히 선교사들이 직면하는 건강 문제 중 다수



신체적 준비를 신중히 함으로써 예비 선교사들은 전임 봉사를 못하게 되거나 봉사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을 피하게 될 것이다.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 관리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는 적절히 관리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선교사의 부름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 사업을 하러 가기 훨씬 전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갈 것이라 예상되는 시점에서 적어도 2년 전부터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준비를 마감까지 또는 선교사 부름을 받은 후까지

미루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어쩌면 선교 사업을 미루어야 할지도 모른다.

신체 건강 관리는 보통 의사나 치과 의사와의 정기적인 진찰을 포함한다. 어떤 경우,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 건강 전문의의 진찰이 요구될 수도 있다.

신체 건강 관리

규칙적인 (매일) 운동. 선교사는 하루 평균 10킬로미터를 걷거나 19킬로미터를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에서 교실이나 직장까지밖에 걷지 않는 예비 선교사는 선교 지역에 가서 발이 아

프거나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자전거가 기본 교통 수단인데도 자전거 타는데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안장 때문에 생긴 상처로 고생할 것이다. 건강하지 못한 선교사는 선교 사업으로 지치게 될 것이며, 지친 선교사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선교사보다 좌절하거나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

예비 선교사는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 한 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선교사 생활의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다. 전자 오락이나 전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이 활동의 대부분인 사람들은 실제로 운동을 즐기

위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월은 걸린다.

적절한 수면. 수면량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성인은 보통 매일 7~8시간은 자야 한다. 이상적으로 청년은 10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들어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야 한다. 새벽 2~3시까지 자지 않거나 아침 10시까지 자면, 보통 피곤하다고 느끼게 되거나 정오까지 자고 싶어진다. 벼락치기 시험공부를 하려고 밤을 새거나, 밤 늦게까지 전자 오락을 하거나 심야 근무를 하면 신체 리듬이 바뀌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선교사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선교사는 매일 밤 10시 30분에 자고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난다. 예비 선교사가 부름을 받기 전에 미리 이와 비슷한 일과 대로 생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건강한 식습관. 젊은 사람들은 당분이나 지방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살코기, 유산균 발효유, 채소, 과일같이 단백질과 섬유질로 구성된 식사를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하루에 350ml 이상의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은 해롭다.

선교사부는 선교사들이 신체 용적 지수를 37 이하로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사실 이 수치는 비만과 병적인 비만의 경계선에 있다. 예비 선교사들은 자신의 체중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것으로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정상 체중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음식 준비 기술. 부모들은 자녀들이 간단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다. 나는 ‘간단’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는 선교사들이 전기 콘로나 버너가 하나 달린 가스 레인으로 조리하거나 오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예비 선교사들은 요리의 기본이나 음식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선교사 숙소에는 보통 자동 식기 세척기가 없으므로 식사 후 뜨거운 물과 세제로 설거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위생. 개인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는 습관은 선교사로 성공하기 위해선 아주 중요하다. 호감이 가는 첫 인상은 오래 남게 된다. 손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선교사들은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전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피부 문제. 십대들에게 여드름은 흔한 문제이다. 심한 여드름 문제가 있는 선교사는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의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일부 여드름 치료제는 거둬 관찰이 필요하며 선교 지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치아 건강. 예방은 치아 건강의 핵심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이를 닦고, 매일 치실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치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치과 치료를 끝내어야 한다. 보통 2년 이상 걸리는 치열교정은 선교사 훈련원에 도착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만성적 건강 문제. 두통은 일반적이고 어려운 건강 문제이며 선교 사업 기간 동안 악화되거나 선교 지역에서 진단하거나 치료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때때로 위나 장 문제 역시 선교 사업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심장 문제나 천식 같은 호흡기 문제는 선교 사업 시작 전에 철저히 진단되어야 한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많은 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선교사 기간 동안 계속하여 치료한다면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부상에 의한 뼈나 관절 문제는 수술을 필요로 한다. 관절경 검사를 포함한 정형외과 관련 치료는 보통 긴 재활 기간을 수반한다. 예비 선교사는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4~6개월) 적절한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무릎 수술을 받으신 2주 만에 목발을 짚고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는 젊은 남성과 여성은 선교 지역에서 걸어야 할 거리를 걷지 못할 수도 있다.

예방 접종.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적절한 나이에 가능한 한 모든 정기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충분한 시간 전에,

봉사하게 될 나라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예방 접종은 접종에 따른 아주 작은 위험 부담보다 훨씬 큰 이점이 있다. 예방 접종은 개인에 따라 병에 저항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면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차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신 건강 관리

모든 사람이 슬픔이나 걱정이나 낙담을 경험한다. 이것은 특별히 상실과 비탄의 기간에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일상 생활을 침해하는 정서적인 어려움은 선교 사업 시작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해결하지 못한 죄들은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것들은 예비 선교사가 부름을 받기 전 감독과 만날 때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해결되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도 치료가 필요한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감정 장애. 우울증, 슬픔, 걱정, 공포를 만성적으로 혹은 계속하여 느끼는 사람은 의사나 정신 건강 상담원을 통해 진찰을 받아야 한다. 특히 그들이 화가 났을 때의 감정 기록 또한 진찰이 필요하다. 상담이나 약물을 통한 치료는 감정 장애를 감소시키거나 완화시켜 선교 사업을 가능하게 한다.

비정상적 사고 패턴. 지나친 걱정이나 죄책감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완벽해지려는 절실한 욕구를 가진 완벽주의 역시 장애에 가까운 정신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다. 고통스런 생각을 계속한다거나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자주 손을 씻는 행위는 강박성 사고 장애의 징조이다. 의사나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런 류의 비정상적인 사



고 패턴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학습 장애. 선교 사업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능력은 필수이므로 주의력 결핍증과(ADD) 같은 학습 장애 문제들은 선교사가 성공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학습 장애에 대한 진찰과 치료를 통해 학습 능력이 현저히 개선될 수도 있다. 일부 학습 장애는 선교사 생활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들과 예비 선교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독 및 전문가와 함께 전임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섭식 장애. 사람들은 자기 위안이나 낙담 및 걱정을 음식을 먹음으로써 해소하려 하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는 비만을 부르는 중독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말라야 한다는 혹은 표준 이하의 체중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나 식욕 항진증을 부를 수도 있다. 이 두 증상 모두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는 선교 사업 기간 동안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치료가 매우 어려우므로 선교 사업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향수병. 선교사 기간 동안 느끼는 가벼운 향수병은 일반적이지만, 부모와 형제 자매를 떠난다는 사실이 극심한 불안을 야기하여 수면이나 섭식하는 능력을 방해하기도 한다.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선교사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극심한 체중 감소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 선교사들은 집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필요가 있다. 장기간의 캠핑 여행이나 학교 기숙사에서 살아봄으로써 떨어져 지낼 때 느낄 수 있는 심각한 불안에 대한 경향을 알 수 있다. 집을 떠났

을 때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의사나 정신 건강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사교술. 선교 사업에는 여러 연령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포함된다. 예비 선교사들은 연장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껴야 한다. 그들은 공손하고 예의 바르며, 올바른 식사 예법을 지키고, 다른 사회의 예절을 준수하기 위해 연습해야 한다. 선교사들은 또한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해야 하므로 예비 선교사들은 그들의 가족과 친구 이외의 사람들과 편하게 접촉을 시도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또한 세상의 여러 문화적 차이점을 잘 알아야 한다.

직업. 선교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일)이다. 선교 사업에는 쉬운 것이 없으므로 젊은 사람들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규 직장은 정시에 출근하고 불필요하게 결근을 하지 않으며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맡은 일이 끝나면 할 일을 찾아내고 퇴근을 일찍 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 직업은 또한 젊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능한 지역에서는, 예비 선교사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내는 현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선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최대한 자신이 부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신이 선교사 비용을 대도록 함으로써 예비 선교사들은 제한된 선교사 할당금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다른 선교 사업의 기회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 선교사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다. 예비 선교사들과 부모들은 선교사 지원서에 건강문제나 약물 치료에 관해 솔직하게 기재해야 한다.

불행히도, 일부 건강 문제는 전임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에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봉사하기를 원하는 회원 중에는 합당하지만 선교 사업을 위한 육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님이 이러한 분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하고 전임 선교 사업 봉사에서 그들을 명예롭게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² 이러한 경우 봉사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큰 축복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은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성숙하며 발전해 갈 수 있다. 부모, 감독, 스테이크 회장은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함으로써 도울 수 있다.

봉사 선교 사업 기회는 교회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Other Resources”를 선택 후 “Mission and Service Opportunities”를 선택한다. 만성적인 신체적 장애에 대처하기 위해 고등 교육을 계속하거나 기술 교육을 받는 것 또한 훌륭한 대안이다.

돕기 위해 이곳에 있음

예비 선교사들은 지원서를 내기 전에 자신을 잘 준비하는 동안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고 자신의 신체적 힘을 증진시켜서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생활을 이겨내도록 정신적, 정서적으로 준비될 수 있다. 그러면 심각한 건강의 문제없이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불행히도 몇몇 선교사들은 선교 사업 중 예상치 않게 아프거나 다치게 된다. 전세계에 50명 이상의 건강 관리 전문가가 전임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200명이 교회 본부에서 자원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다. 이들 모두 선교사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건강 관리 전문가들의 작은 무리는 그야말로 아프거나 다친 어느 선교사라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사들이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는 동안 건강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다. ■

주

1. “선교사가 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4쪽.
2. 제일회장단 서신, 2004년 1월 30일.

(1856~1945)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그 찬송가를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전에서 갖는 주례 모임에서 어떤 달에는 한 달에 두 번도 불렀으며, 우드럽 형제님이 그 찬송가를 부르자고 하지 않고 한 달을 지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이 사업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사업의 촉진을 위해 그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해 일하셨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2004], xv)

사람들은 우드럽 회장에 대해 일지를 열심히 기록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는 그의 성인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일지를 기록했으며, “운명하기 이틀 전인 1898년 8월 31일에 마지막 일지를 기록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125쪽)

한 모임에서 그는 공식적인 교회 기록에는 물론, 일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쳤다. “넷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같은 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험을 두 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모임에서 있었던 일은 영원히 단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었던 시간을 우리는 결코 다시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임에서 한 일과, 가르침과, 권고를 기록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127쪽)

그는 어린이들에게 일찍부터 일지 적기를 시작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젊은 친구 여러분이 이 일을 시작하여 계속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황금보다 더 가치

교회, 윌포드 우드럽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다

케이트 맥닐, 교회 잡지 기자

2007년 3월 1일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4대 회장인 윌포드 우드럽이 태어난 지 200년이 되는 날이다.

1807년 3월 1일에 태어나 미국 코네티컷 주 파밍턴에서 자란 윌포드 우드럽은 제분소 직공이었다. 그는 1833년 교회에 가입했으며 1839년 사도로 성임되기 전 두 번의 선교 사업을 했다.

십이사도 정월회의 일원으로서 그는 추가로 네 번의 선교 사업을 완수하였으며, 유타 주 세인트조지 성전을 관리하였으며 교회 역사 편찬가로 6년간 봉사했다.

그는 1889년 4월 7일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되었고 유타 주 맨타이 성전을 헌납했으며 오래 기다려온 솔트레이크 성전을 헌납하였다. 또한 Genealogical Society of Utah의 조직을 감독하였으며 역사 기록 작성의 가치에 대해 재강조했다.

우드럽 회장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함께 시온 캠프에 참가한 충실한 개척자



윌포드 우드럽 회장

였다. 1847년 7월 24일, 40세의 나이로 솔트레이크 계곡에 당도하였으며 브리검 영이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선언했던 당시, 브리검 영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 이루시는 일”(찬송가 178장)은 우드럽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였다. “윌포드 우드럽이 교회 회장이었을 때 사도로 봉사한 히버 제이 그랜트



우드럽 회장은 40년에 걸친 건축 기간 후에, 1893년, 슬트레이크 성전을 헌납했다.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132쪽)

깊은 숙고와 기도 끝에, 우드럽 회장은 후기 성도들은 복수 결혼의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계시를 받았다. 1890년 그는 공식선언-1을 작성했으며, 교회가 복수 결혼의 시행을 중지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 계시를 공표하는 데 있어 주님을 대신한 것 외에도 우드럽 회장은 선교 사업과 성전 사업을 강조하는 유산을 남겼다.

우드럽 회장은 91세의 나이로 1898년 9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운명했다.

2006년 전세계의 회원들은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교재를 통해 이 선지자의 간증에 대해 배웠다. 교재에는 우드럽 회장의 일생과 성역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드럽 회장은 현대의 선지자를 보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젊은 시절 나는 밤낮으로 선지자를 볼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습

니다. 나는 선지자를 보거나 성경에서 내가 읽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천 킬로미터라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교회에도 속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xix~xx쪽)

우드럽 회장은 현대의 계시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시 없이는 24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47쪽)

그는 또한 성신을 통한 개인적인 계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성역을 갖고 있고, 기적을 보[지만] ... 저는 성신의 은사야말로 사람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49쪽)

우드럽 회장은 종종 성도들에게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주님께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후기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성전에 가는 것은 산 자만을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도 구속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xxix쪽) 그는 특유한 근면함으로 성전 사업에 대한 모범을 보이면서, 수많은 그의 조상들을 위한 사업을 행했다.

그의 시대의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드럽 회장은 전세계에 성전이 세워질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

이러한 보고가 나온 시각, 아우나 회장은 진원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에 위치한 코할라 와드 집회소의 벽에 금이 갔으며 조명 기구에 손상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스테이크 내 건물들의 구조적 안전에 대한 진단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던 케에이 와드 집회소에서는 그곳의 위성 수신용 안테나가 지지대에서 떨어져 부지에 있는 선교사 숙소의 모퉁이에 손상을 주었으며 또한 집회소 내 천정 부착물들이 떨어졌다.

오아후 섬에는 정전 외에는 하와이 라이에 성전에 보고된 피해는 없으며, BYU-하와이나 인근의 폴리네시안 문화 센터에서도 보고된 피해는 없었다. ■

2006년 10월 21일자 Church News에서 발췌

하와이 제도를 강타한 지진 이후 단합한 회원들

줄리 독스테더 힉스, Church News 기자

최 초 측정에 따르면 일요일인 2006년 10월 15일 이른 아침, 하와이 제도에 있었던 진도 6.7의 지진은 하와이 코나 성전 및 몇몇 집회소에 약간의 피해를 입혔다.

현지시간으로 오전 7시 7분에 발생한 지진의 진원지는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카일루아 코나 북북서 쪽으로 16km 지점이었으며, 하와이 제도 모든 섬에서 진동이 감지되었고, 그로 인해 오아후 섬에서는 정전이 있었다. 빅 아일랜드에서는 수 시간 동안 전기가 나갔으며 도로, 다리 및 많은 구조물들이 손상을 입었다.

카일루아 코나 섬에 위치한 하와이 코나 성전에서는 상들리에에 손상이 갔고 다른 곳에도 약간의 피해가 있었지만 지역 칠십인이자 BYU-하와이 총장인 에릭 비 섬웨이 장로에 따르면 그 이틀 후, 참

여자들을 위해 성전 문을 열었다고 한다.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나 선교사들은 없지만 빅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집회소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다고 섬웨이 장로는 덧붙였다.

섬웨이 장로는 지진 후 짧은 시간 내에 비상 사태 및 재난 계획이 가동되었다고 언급하며 “교회 회원들이 같이 단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와이 코나 스테이크의 앨리 케이 아우나 이세 회장은 진도 6.5 이상의 지진에 대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스테이크의 비상 계획에 따라 신권 지도자와 회원들이 보인 반응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스테이크 회원들이 즉시 “연락이 닿았으며 안전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기사 요청

리 아호나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구주에 대한 간증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지 나누도록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속죄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을 500자 이하로 작성한 후 “Testimony”라고 표시하여 2007년 4월 16일까지 liahona@ldschurch.org나 Liahona Editorial, 50 E. North Temple St., Roo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 (또는 지부 및 지방부)를 기재하고, 사진(사진 게재를 허락하는 서면 승인서 포함)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이번 달 리아호나는 선교 사업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아호나 표지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표제와 함께 두 선교사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안에는 청소년이 봉사할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과 그의 인터뷰 내용을 비롯하여 우리 삶에서 영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 및 다른 분들의 권고와 선교 사업의 축복에 대한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메시지가 실려 있습니다.



왼쪽부터 고원용 장로,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가르히코 아마시타 장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자녀들에게 간증하십시오.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십시오. 그들에게 “자신을 잇고 사업에 전념”할 때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희망이고 꿈이며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이웃을 위해 이 위대한 봉사를 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딸들에게는 그들이 합당하며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선교 사업이 합당한 성전 결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지지할 것임을 알려 주십시오. 벨라드 장로는 이번 호 리아호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의 선교부이든 더 많은 자매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선교부 회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힝클리 회장님이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는 그의 손에 다음과 같은 짧은 성구가 적힌 쪽지를 쥐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마가복음5:36) 이후 한 힘든 시기에 그의 아버지는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짧은 편지 한 통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든, 최근에 보낸 네 편지는 잘 받아보았다. 네게 할 수 있는 제안은 이 한가지 뿐이구나. 네 자신을 잇고 사업에 전념하거라.” 그날 아침 편지가 오기 전, 힝클리 장로와 그의 동반자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마가복음 8:35)

젊은이 여러분,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십시오. 바로 오늘이 다른 일을 미루고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결심의 날”이 되도록 하십시오. 젊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 사업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린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봉사해야 함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젊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을 합당하게 지키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그 후에 충실하게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선교 사업 경험을 돌이켜보고 힝클리 회장님과 그 밖의 수많은 분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 제 삶에서 일어난 모든 좋은 일은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제 삶의 일부를 바치겠다는 결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고든은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봉사하면서 제 자신을 잇고 자신을 바치겠다고 성약했습니다. 1933년 7월 그날은 제 결심의 날이었습니다.(Friend, 2006년 7월호) 그가 자신을 잇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자, 젊은 힝클리 장로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내 삶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나라의 아름다움이 보였고 그곳 사람들의 위대함이 보였습니다. ... 그 이후 세계 일어난 모든 좋은 일은 바로 그 작은 집에서 했던 결심으로 인해 온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하십시오. 와서 깨끗하게 되십시오. 와서 행복하게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값이 있을”(교리와 성약 15:6)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일을 와서 경험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큰 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이 책임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축복임을 간증드립니다. ■

여러분의 지역 회장단으로서 우리들은 부모와 젊은이들에게 이번 호 리아호나를 함께 읽고 가족으로서 그에 대해 토론하도록 권고 드립니다. 부모님들은 힝클리 회장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장로 내한 특별 모임

“주님의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2007년 1월 넷째 주,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한국을 찾았다. 단 며칠 동안이었지만 넬슨 장로가 대전과 서울 지역을 오가며 전한 사랑과 감동의 메시지는 성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넬슨 장로의 발걸음을 되짚어 본다.

대전 지역 특별 모임

1월 25일, 대전 우송 예술회관에 모인 성도들에게 넬슨 장로는 더 훌륭한 가정으로 만들 5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가족사진을 찍어서 걸어 놓고, 성전 그림을 걸어 두고,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고, 리아호나를 구독하고, 가정에 교회 음악이 있게 하라는 것이 넬슨 장로가 전한 방법들.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각지에서 구름처럼 모여든 성도들은 넬슨 장로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모임은 평일 저녁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도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인 700여 명의 성도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서울 영등 스테이크 대회

넬슨 장로는 1월 27일과 28일에 열렸던 서울 영등 스테이크 대회에 감리자로 참석했다. 송파 구민 회관에서 진행 된 28일 일요 총회에서 넬슨 장로는 문자 그대로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해 가르쳤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경전을 읽고 항상 구절을 인용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신권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도가 전하는 ‘기본’에 많은 회원들은 영적으로 감화되었다. 넬슨 장로는 또한 “회원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시작하는 선교 사업이야말로 잠재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당부했다. 사랑과 감사를 함께 전하며 말씀을 마친 넬슨 장로는 곧 다음 모임 장소를 향해 바쁜 걸음을 옮겼다.

서울 지역 특별 모임

1월 28일 저녁 6시, 넬슨 장로와 함께 한 서울 지역 특별 모임의 장소는 세종 대학교 대양홀이었다. 삼천 석 규모를 자랑하는 넓은 공간에 하나 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오후 4시 무렵. 모임 시작이 가까워지자 대양홀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 들었다. 삼천 석이 가득 찬 것이다. 주님의 사도를 보기 위한 성도들의 열의는 그만큼 크고도 강했다. “이 곳을 가득 채운 성도들에게 감사 한다.”는 말로 말씀을 시작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고원용 장로는 스펜서 더블류 김블 회장의 “걸음의 폭을 넓혀라.”는 말을 인용하며 “더 넓고 많은 걸음을 걸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오른 넬슨 장로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에게 가르칠 내용을 전하겠다.”고 말하며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칠 내용들에 대해 말씀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속죄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경전을 읽어주고, 십일조의 축복에 대해 가르치라는 것 외에 여러 가르침을 전한 넬슨 장로는 한국의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했다. 넬슨 장로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에 대해 보상에 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며 “주님의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는 감동적인 전언으로 말씀을 마쳤다. 한편 이날 모임에 참석한 삼천 명 중에는 11명의 특별한 성도들이 있었다. 농아 지부에서 참석한 11명의 회원들이 바로 그들. 한성미 자매와 이해택 형제의 수화 통역으로 넬슨 장로의 말씀을 들은 정중태 형제(중앙 농아 지부)는 “말씀을 듣고 넬슨 장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좀 더 경전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성전 방문을 가야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을 전했다. ■

오경권 기자, 오순임 기자, 이진희 기자



바늘구멍만큼의 빛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을 몇 달 앞 둔 39살의 어느 날,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의 윤애란 자매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다. '공부를 하자! 지금까지는 신권 지도자의 아내로서 교회 안에서만 봉사했지만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이었지만 윤애란 자매는 실행해 옮겼다. 가족 치료 대학원에 입학했고 상담원 공부도 했다. 가족 치료사, 사회 복지사, 미술 치료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의사소통 강사로도 일했다. 그 모든 것을 39살 이후에 이뤘다. 윤 자매의 새로운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그것도 가족 치료나 상담원으로서의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윤애란 자매는 “인간관계에서 빈틈”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녀들을 키우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윤 자매는 공부를 하기 전에도 이미 다른 이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윤 자매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비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더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느꼈고,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은 곧 공부로 이어졌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윤애란 자매는 모든 이론들이 교회의 가르침 그대로였다고 회상한다. “대학원이나 상담원 공부를 하

‘가정폭력상담소’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이하 ‘이민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민자센터’는 전국 21개 ‘이민자센터’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해 12월 5일 여성가족부 장관 상을 받았다.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윤 자매에게 먼 타국에 와서 힘들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외국 여성들을 돕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윤 자매와 ‘이민자센터’는 결혼 이민자들의 필요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돕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프로그램, 요리 교실, 무용 치료, 문화 체험, 그리고 컴퓨터 교실 등이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활동이다. 윤 자매는 모든 활동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두고 진행한다. 그녀가 다른 이들을 위해 ‘돈 한 푼 생기지 않는 일’에 봉사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 교회에서 배운 그 가치를 이 땅의 모든 소외 계층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윤 자매의 소망이다.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윤 자매의 소망이다.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윤 자매의 소망이다.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윤 자매의 소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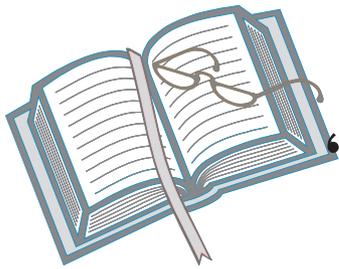
윤 자매는 손을 들어 허공에 그림을 그려가며 말한다. “방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면 쉽게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늘구멍처럼 작은 구멍이라도 뚫어서 빛을 들이면 어느새 어둠은 물러갑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늘구멍만큼의 작은 빛,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 땅의 성도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서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는 그때를 상상해 본다. 윤애란 자매의 눈부신 미소처럼 환하고 밝을 그 세상을 소망해 본다. ■

결혼 이민자인 알리시아씨의 출산을 축하하는 윤애란 자매



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교회의 가르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나 상담을 하면서 세미나리 교재나 공과 교재, 그리고 가정의 밤이나 상호부조회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합니다.” 윤 자매가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돕는 일. 그녀는 단순히 여성들을 돕는 일에 그치지 않고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을 상담하고 교회시키는 일도 했다. 그때 사용했던 것이 교회 비디오인 ‘자니링고.’ 그 비디오를 보여 주며 인간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곤 했다.

윤애란 자매는 현재 ‘아산우리가족상담센터’의 대표로 봉사하고 있다. 이름 그대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상담해 주는 곳이다. 더불어 윤 자매는



“내가 접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

앨마서 37장 35절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는 물론 경이다. 과목은 매년 다르지만 경전을 펼쳐 들고 밤을 밝히는 청소년들의 열의는 늘 변함이 없다. 전국 각지에서 열린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의 열띤 현장으로 초대한다.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서울 서종교 교육원 학생들

사진: 이태원

광주 종교 교육원 - 버저를 울려라!

광주 종교 교육원의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전으로 치러진다. 그만큼 긴장감도 더하고 퀴즈 대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2007년 1월 27일 토요일,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렸던 광주 종교 교육원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는 열띤 응원과 뜨거운 경쟁의 장이었다.

개인전으로 진행되는 광주 종교 교육원의 퀴즈 대회는 예선과 본선이 있다는 것이 특징. 예선 시험 점수와 출석 점수를 합산해서 높은 순서대로 12명의 청소년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이 시작되면 광주 종교 교육원 퀴즈 대회의 명물이라 할 수 있는 버저(Buzzer)가 등장한다. 성구 쓰기 등의 문제와 달리 단답형의 질문 등은 버저를 먼저 누른 청소년이 대답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경전 지식은 물론이고 순발력까지 요하는 이 순서에 많은 청소년들이 손에 땀을 진다.

동점자가 3명이나 있어 14명이 본선에 진출한 올해 퀴즈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경전을 손에서 떼지 않고 합숙을 하며 서로를 격려했던 시간들이 버저를 누르는 손에서, 그리고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 결과 정다운나라 형제(광주 스테이크 송정 와드)와 조은비 자매(광주 스테이크 송정 와드) 그리고 이한나 자매(광주 스테이크 백운 와드)가 나란히 1, 2, 3등을 나눠가졌다. 조용현 회장은 “주님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때를 준비하십시오.”라고 전하며 참석한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부산 종교 교육원 - 우리 와드 이겨라!

부산 종교 교육원 퀴즈 대회가 끝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목이 쉰다. 온 힘을 다해서 응원을 하기 때문이다. 와드별 대항

으로 진행되는 부산 종교원 퀴즈 대회는 그래서 응원의 열기가 더 뜨겁다. 2007년 1월 20일, 수정 와드에서 열린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에서도 뜨거운 응원은 여전했다. 하얀 칠판에 신중히 문제를 풀어나가는 청소년들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부산 종교 교육원은 칠판에 답을 적어서 드는 기존의 방식과 함께 경전에 나와

있는 성구를 찾는 방법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퀴즈 대회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퀴즈 대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1위가 엇갈리고 또다시 엇갈리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다가 결국 해운대 와드가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신정, 금정 와드가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 해운대 와드 참가자였던 권희진, 강세희, 백혜원 자매는 1위의 비결에 대해 “반원들이 계획을 세워 스스로 모여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동안 함께 기도하고 금식했으며 경전을 먼저 모두 읽은 다음 교재를 통해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였다.”고 전했다. 대회에 참석한 방어진 와드 김강남 자매는 세미나리 시간이 “경전 지식 뿐 아니라 개인적인 간증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간증했다.

서울 동종교 교육원 - 청소년들의 문화 축제

동종교 교육원의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는 단순히 문제를 풀고 1등을 가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양한 공연에서부터 레크리에이션까지 더해져 청소년들의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 1월 20일 동대문 와드에서 열린 퀴즈 대회도 다양한 행사로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시간이었다.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이세리 자매의 가야금 연주와 서울 동 스테이크 도봉 와드 최민정 자매의 피아노 반주가 어울려져 ‘Amazing Grace, As Now We Take the Sacramen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들려주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정정환 형제의 진행으로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이어졌다. 본격적인 경전 퀴즈 시간은 ‘Quiz Show! Inside of Book of Mormon’이라는 타이틀로 4개의 스테이크 단위로 팀이 체스판을 연장시키는 판 위에서 문제를 선택하

고 맞히면 앞으로 전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동안 쌓아온 경전에 대한 지식을 겨룰 수 있었다. 게임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퀴즈 게임의 선택지에 간간이 장기 뽑내기, 다른 팀 점수 빼앗아 오기 등을 섞어 재미를 더했다. 퀴즈 대회의 최종 1등은 서울 스테이크가 차지했고, 2등은 서울 동 스테이크 차지였다. 퀴즈 대회가 끝난 후에는 김미남 형제의 초청 강연도 있었다. 동 종교 교육원 원장인 서희철 형제는 “세미나리와 경전 퀴즈 대회에서 얻은 경전 지식은 앞으로 선교 사업을 하는데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특히 청소년 시절부터 경전을 상고하고 공부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 서 종교 교육원 - 가슴 떨리는 토너먼트

서울 서 종교 교육원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도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예선의 진행 방식이 무척 독특하다. 모든 예선 참가자들에게 표식을 주고 문제를 하나씩 틀릴 때마다 그 표식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제일 많이 표식을 남긴 8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표식이 오가는 만큼 청소년들이 느끼는 재미와 긴장감도 크다. 본선은 예선전의 긴장감을 그대로 옮겨온 토너먼트 방식. 본선에 진출한 8명이 두 명씩 맞대결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성구 익히기를 강조하는 만큼 성구를 완전히 외우고 있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된다. 2007년 2월 3일, 신촌 와드에서 열린 경전 퀴즈 대회의 본선 진출자 8명은 그야말로 성구 익히기의 달인들이었다. 청소년들은 지난 일 년 간 어떻게 경전 공부를 해 왔는지를 확인해 주듯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 나갔다. 가슴 떨리는 토너먼트의 최종 승자는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의 구예경 자매. 뒤이어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의 김인협 형제가 중학교 3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수상을 차지했다. 서울 서 종교 교육원 원장인 길정권 형제는 앞으로도 매년



위쪽부터 1라운드 스피드 게임을 진행 중인 중부 종교 교육원. 게임판을 오가며 퀴즈를 풀어가는 서울 동 종교 교육원. 칠판에 답을 적어 문제를 푸는 부산 종교 교육원. 개인전으로 치러지는 광주 종교 교육원

있을 종교 교육원 주최 퀴즈 대회에서는 25개의 성구 익히기가 주로 강조될 것이며, 일 년 동안 성구를 부지런히 외운 청소년이라면 누구라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독려를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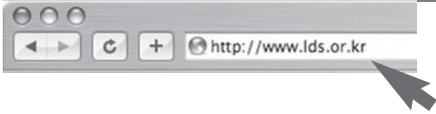
중부 종교 교육원 - 3라운드를 통과하라!

중부 종교 교육원은 난이도별로 달리 구성된 3개의 라운드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퀴즈 대회를 진행한다. 라운드가 바뀌면서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 청소년과 아쉽게 떨어진 청소년들의 희비가 교차하며 중부 종교 교육원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의 열기와 재미는 고조된다. 2007년 2월 3일, 청소년들이 모임 시작 바로 전까지 손에서 성구 익히기 카드를 놓지 못하며 긴장하는 가운데 경전 퀴즈 대회가 시작되었다. 예년과 달리 와드별 대항전으로 치러진 이번 퀴즈 대회는 성구 익히기가 주를 이룬 2라운드에 들어서며 열기가 달아올랐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3라운드에서는 열거된 문장의 초성만을 보고 경전 구절을 맞추고 성구를 외워야 했는데 긴 구절을 토씨하나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읊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며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감탄했다. 퀴즈 문제를 열심히 만들고 준비했는데 출제자를 무색하게 할 만큼 너무 잘 풀었다는 어느 자매의 칭찬처럼 세미나리로 하루를 시작하던 청소년들이 줄음을 이기고 부족한 자신을 이기며 쌓은 경전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이번 퀴즈 대회의 최종 우승은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에게 돌아갔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경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고 했던 하봉채 형제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자라는 청소년들의 눈빛은 이미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

최진 기자, 이인주 기자, 이지은 기자, 이숙희 기자, 최재현 형제, 오순임 기자, 이효선 기자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 스테이크 <최진 기자>

곽재운 형제 '장한 한국인 상' 수상 - 광주 스테이크 곽재운 형제가 2006년 12월 8일 장한 한국인상 - 특별상을 수상했다.

대전 스테이크와 청주 스테이크 합동 청소년 대회 <오순임 기자>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



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교리와 성약 121편 45절의 말씀을 주제로 2007년 1월 17일부터 1월19일까지 대전·청주 스테이크가 합동으로 만인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구도자로 대회에 참석한 배상영(고3) 형제는 "다른 교회에 비하여 조용하면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경건한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마산 스테이크 <김민정 기자>



합동 상호 향상 모임 - 2007년 1월 13일 토요일, 스테이크 합동 상호 향상회 모임을 위해 마산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얼굴로 모임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의 얼굴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다. 세미나가 끝난 후 배를 타고 즐거운 모습으로 돌섬에 도착한 청소년들은 그곳에서 쌍쌍피구, 장애물 릴레이 등 체육활동과 무도회를 통해 우정을 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부산 스테이크 <이인주 기자>

신입 독신 환영회 - 1월 20일 수정와드에 모인 부산스테이크 독신들은 청소년에서 독신으로 올라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신입 독신들을 환영하는 모임을

“가족 역사 사업에 함께 참여하실 교회 봉사 선교사를 모집 합니다”

‘한국 가족 및 교회 역사부’(이하 ‘가족 역사부’)는 ‘교회 봉사 선교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돌아가신 조상을 구원하는 사업에 함께 참여하시고, 다른 회원들의 가족 역사 사업에 도움을 드릴 형제, 자매님을 찾습니다.

아래 <봉사 분야>에 열거된 여러 조건 중 일부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참여 가능하며, 가족 역사 지원부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 도움을 제공할 것 입니다. (항목 1, 3 해당) 봉사 부름에 합당한 독신 성인 이상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봉사 선교사로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1. 봉사 시간: 주당 최소 8시간, 최대 31시간
2. 봉사 기간: 12개월, 18개월 또는 24개월 (최대 30개월까지 연장 가능)
3. 자격
 - ㄱ. 성전 추천서 소지자/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회원

- ㄴ. 신체적으로 봉사가 가능하며 재정적 자립 능력이 있는 회원
 - ㄷ. 만 18세 이상 봉사를 희망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
4. 봉사 장소
- ㄱ. 성전 내에 위치한 가족 역사 지원부 (정기적인 사무실 방문이 가능하신 회원)
 - ㄴ. 해당 스테이크 내 가족 역사 센터 (전국)
 - ㄷ. 자택 (지방)
5. 지원: 관리 본부 총무부장 정동환
전화: 02-2232-1441(내선 660)
Jeongdh@ldschurch.org

봉사 분야

1. 계보사업/족보 전문가
2. 언어 전문가 (영어와 일어)
3. 컴퓨터 전문가

가졌다.

동계 청소년 대회 - 2007년 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지리산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청소년과 고문 등 1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 청남 스카우트 캠프 및 청녀 야영 대회가 있었다.



서울 북 스테이크 <이숙희 기자>

동계 청소년 대회 - 지난 1월 25일에서 27일까지 홍천에서 2박 3일간의 일

정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라는 주제로 서울 북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가 열렸다.



서울 영동 스테이크 <이진희 기자>

스테이크 대회 - 2007 전반기 서울 영동 스테이크대회가 1월 28일 일요일(일요총회) 오전 10시에 송파 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안양 스테이크 <나선경 기자>

음악과 함께 하는 특별 노년의 밤 -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안양 스테이크 모임이 오르간의 아름다운 선율로 문을 열었다. 2007년 1월 14일 안양 스테이크 산본와드에서는 '음악과 함께 하는 특별 노년의 모임'이 있었다. 첫 순서는 초청 강사로 온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김정애 자매의 오르간 음악 세미나였다. ■



지역 복지부의 메시지

지역 복지부는 지역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교회 지침서 249쪽, '영적인 복지(우리가 자신을 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와 현세적인 복지(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자립하는 것)'에 나와 있는 원리들을 이해하고 그러한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와 줍니다. 이 난을 활용하여 우리는 영감에 찬 메시지와 간증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제언과 자원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가 도와 주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지의 첫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애굽으로 간 요셉은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권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오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30세 때, 요셉은 두 가지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 왕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선언하며 자신의 신앙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으며, 다가오는 칠 년의 기근을 위해 준비

하기 위해서 애굽을 다스리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록에는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 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많은 축복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은 이 기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은 큰 궁전과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큰 축제와 연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곡물을 모으고 창고를 지어 곡물을 그 안에 저장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기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많은 축복을 받을 때 무엇을 합니까?

신앙, 검약 그리고 비전에 대해 요셉이 보여 준 모범은 우리가 우리의 축복에 대해 생각하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고 어느 때든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추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축복받은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조양호, 영동 스테이크 송파 와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프랑스의 한 신문이 독자들에게 물어 보았다. 수많은 응답 가운데 한 어린 소녀가 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눈”이라는 것이 뽑혔다. 이런 내용의 글을 초등학교 때 책에서 읽고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린 자녀를 보고 있는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눈이야 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에 동감을 하면서 그 내용은 오랫동안 내 기억에 머물러 있었다.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는 것이 결말이 나고 있는 그해 겨울은 나에게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치고 스트레스는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가 드디어 나는 몸져 누워 버렸다. 생전 아픈 표정조차도 보이지 않던 아빠가 누워 있으니 아이들에게는 충격이었나 보다. 가끔씩 조심스런 눈으로 내 침대를 맴돌다 저희들 방에 돌아가곤 하는 눈치였다. 그날 밤 한 밤중에 약을 먹으려고 자리에서 간신히 일어나 거실에 나왔다가 아이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불을 켜 놓고 잠들었나 싶어 방문을 살피며 여는 순간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려 “왜 자지 않고?”라고 묻는 나의 질문에 큰 아이가 “아빠가 아프시잖아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치 감전된 것처럼 가볍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의 기도는 이튿날 나를 가볍게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은 록키산 맥에서 몰아치는 눈만큼이나 매섭게 발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며칠 밤을 새며 공부를 했지만 일은 풀리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현기증이 나더니 몸이 휘청 거리며 쓰러져 가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아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몸을 바로 잡으며 누가 나를 도와주었나 보려고 뒤돌아 보았지만 아무도 없고 단지 차가운 겨울바람이 귓가를 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어깨에는 따스한

느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때 나는 머리에 언뜻 한 생각이 스쳐 갔다. ‘아이들의 기도의 손이 나와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는 또 다른 큰 손을 부르고 있구나. 그 손이 조금 전에도 왔다 갔구나.’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담아 두었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이들의 기도하는 손이다.”

기도를 잘하는 둘째 딸이 이제 성장하여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 떠나기 전에 그 딸과 우리 부부는 성전 의식을 받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먼저 의식을 마치고 해외 왕국 실에 있는데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딸이 들어왔다. 우리 셋은 기도를 하였다. 한없는 감사와 평화와 사랑이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거기에는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선교사로 떠나가는 자랑스러운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사랑스런 눈도, 기도를 하는 그 예쁜 손도, 어깨를 잡아준 그 큰 손의 따스함도 있었다. 나에게 그 시간과 공간이 아이의 눈에도, 어른의 눈에도, 아마도 주님의 눈으로도 이 세상에서 아니 영원까지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었다.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감독: 윤영통(전임: 김광윤)

전주 스테이크
남원 지부 지부 회장: 황창규(전임: 김현수)

서울 남 스테이크
서초 와드 감독: 조준영(전임: 정인성)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2명



배진희 자매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플로리다 올랜도
선교부



허영호 형제
서울 남 스테이크
신림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